

소규모 미술관의 외관형태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Exterior Form in Small Art Museum

김성기* / Kim, Sung-Kee

Abstract

Small art museums are important objects in the point of view that they are museums to speak for the general architectural culture of current Korea and immediate factors to have an effect on urban street view and urban people's life.

In small art museums, form has had plural transfigurational process, when we analyze the external component elements or form types, we will find various aspects.

In past, composition of form was expressed by simple partition of surface and column. Now a days, it is expressed with unnumerable formal vocabularies. Although these forms being looked plural, form principle of composition that prescribe it can be rather simple.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omposition technicque of form in small art museums by analyzing compositional elements of it.

키워드 : 소규모 미술관, 외관형태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건축물은 외관을 통하여 비로소 그 이미지를 표현하고 가로 경관의 주된 구성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소규모 건축물은 대규모 건축물에 비해 디자인 의도와 요구가 쉽게 외관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 주로 건물과 건물이 인접해서 전개되므로 가로 문화를 형성하는 데 비중이 크다.

건축이 사회적이라는 뜻은 건축의 기능이 구체적인 생활문화의 수단으로서 개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건축이 문화적 수단으로 생활에 연루되는 것은 주택이나 생산시설과는 훨씬 후차적인 순서에 있었다. 아마 그것은 삶의 질이 자본재의 이해를 넘어 보다 넓은 환경을 필요로 하게 된 최근 들어서 일일 것이다. 미술관이 우리 생활 문화에 일상성으로 다가온 것도 그렇게 오래지 않는다. 미술관이 일상적인 생활환경이 되기 위하여서는 미술관 공간은 열려야 하며 활동은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¹⁾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일상생활의 틀 속에 갇힌 인간의 감성을 이곳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여야 하며, 예술품을

느끼고 이해하고 작품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적 장치로서도 충분한 기능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술관의 공간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1차적인 필요조건은 건축이 작품의 배경으로서 존재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비 일상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소규모 미술관 건축물의 외관 형태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그 형태 표현 특성과 형태 구성 원리를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소규모 미술관의 외관형태의 경향을 밝힘과 동시에, 앞으로의 바람직한 형태 구성의 방향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¹⁾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인 소규모 미술관은 생활문화권에 의한 권역별 위계를 중심으로 미술관의 연면적에 대응하여 분류되는 규모 유형, 즉 특대형, 대형, 중형, 소형 등의 4가지 유형중 소규모 미술관으로서, 미술관의 연면적이 2,000㎡내외가 되는 상업적 갤러리(화랑)를 포함한 소규모 미술관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미술관의 외관이 출입구가 설치되어있는 면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방법은 주로 사례 대상에 대한 관찰과 스케치 및 사진 촬영에 근거하며, 부분적으로는 용도에 대한 조사와 약간의 계량적 조사가 이에 참가된다.

*정희원, 경산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전임강사

1) 박길룡, 시민의 문화 환경과 미술관의 일상성, 건축세계 9704. p.52

2. 소규모 건축물의 제 특성

2.1. 소규모 건축물의 개념

소규모 건축물은 도시 환경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건축 문화를 대변하며 대중 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생활 행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이 규모나 외관으로 볼 때 독자적으로 도시의 성격과 역할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가로를 따라 집단의 형태로 존재하여 지역 사회의 성격과 역할을 대변해 준다.

소규모 건축물의 개념을 여러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연면적 2,000㎡이하이고 층수는 6층 이하 정도인 건축물을 우리는 소규모 건축물로 볼 수 있겠다.

현대적 의미의 소규모 미술관은 사회, 교육적 의미를 지닌 현재적 존재로 그 안에 수용된 문화, 예술품을 일반대중에게 적극적으로 펼쳐 보이고, 다양한 문화, 예술활동을 활성화시켜 미술관 그 발전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밝히는 최소단위의 전문 장소이며, 지역 사회의 도시구조 속에서 쉽게 융합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심리적, 문화적 장벽을 제거한 보편적 개념의 미술관을 의미한다.

2.2. 소규모 건축물의 특성

소규모 건축물은 그 시대의 건축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건축물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구법과 건축재료의 사용, 건축표현 등에 있어서 그 규모적인 이점 때문에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중적인 취향이나 여러 사회현상들이 바로 건축물에 드러날 수 있는 특성이 소규모 건축물에는 있다.

소규모 미술관에 요구되는 기능적 탄력성은 건축 형식에서 거의 모든 예술형식을 수용할 수 있는 가변성과 융통성을 필요로 한다. 한 때 미술관 건축의 조형이 가장 뛰어난 표현적 주제가 된다고 생각되던 경향이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소규모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그 장소가 우리와 가까이에 있다는 점이다. 미술관을 예술활동과 대중간의 매개체로 이해한다면 미술관이 더 이상 고답적이지 않아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는 가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시민 생활을 흡입하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보여지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양식적 특성은 포스트 모더니즘, 네오 모더니즘 또는 해체주의건축, 후기 모더니즘 등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과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으며, 한국의 건축적인 흐름이 매우 민감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²⁾

2.3. 소규모 건축물의 형태표현 경향

소규모 건축물은 필연적이라 할 정도로 시각적으로 돌출해야 한

다는 숙명적 운명을 지니고 있으며, 상업성의 주된 요소로 장소적 가치와 함께 건축물의 형태적 가치 역시 중요시되고 있다. 경제적, 정신적 여유에서 오는 생활의 여유는 건축물의 형태적, 기능적, 공간적 여유를 수반하게 되고, 이것이 건축물의 형태 기능공간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규모 건축물의 형태 표현 경향은 개성적 조형 의사와 다원적인 차원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소규모 건축물이 추상적인 상자형에서 점차로 상징성이 강한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는 과거의 무미 건조한 형태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며 이런 다원적 현상은 건축가의 예술적 역량과 건축적 예술성을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소규모 건축물의 형태표현 경향은 상업성에 입각해서 형태가 구성되는 상업주의적인 표현 경향과 건축행위를 하나의 조소적 행위로 보고 건축 형태를 구성해 나가는 경향, 무 개성의 단순한 경제 논리와 합리성의 원칙에 따른 단순하고 기능적인 메스의 건축 형태를 만드는 경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경향들이 혼합되어서 난립되어 나타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³⁾

3. 소규모 미술관의 형태표현특성

3.1. 벽면부

건축설계에 있어 벽면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경계라 볼 수 있고 도로 측에서 보면 건물의 외벽은 그 건물의 얼굴이며, 이 얼굴들이 모여 가로의 벽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1) 피막

피막의 개념은 근대건축 발생초기의 비 내력적 외벽 개념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는 건축에 있어서 단순화, 효율성의 추구, 장식의 제거 등을 강조한 모더니즘의 건축정신을 가장 첨예하게 나타내고 있는 개념이다.⁴⁾

(2) 격자

근대건축에서 심메트리를 대신하는 규칙성이란 바닥의 좌표체계가 되며, 동시에 그것에 스케일을 부여하는 기둥의 규칙성이었다. 그 결과 사물을 생산하는 질서로서 직교의 격자가 원리로 성립되었다.

(3) 적층

이질적인 두 개 이상의 면이 공간적으로 전후 관계를 이루면 이들 면에서는 공간적인 깊이를 가진 적층의 형식이 성립된다. 면의 적층이란 실제의 공간과 가상된 공간의 깊이를 형성하여 면 구성의 독해를 함축성 있게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⁵⁾

3)정민우, 전계서, p.32

4)탁영숙, 면의 의식 측면에서 본 두 건물, 플러스, 8802, p.122

5)김광현, 표면의 의식, 플러스, 8802, p.106

2)정민우, 가로변 소규모 상업건축물의 외관 형태 요소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1993, p.23

(4) 자립

본래의 구조체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독립해 있는 면을 자립면이라 한다. 이것은 면 자체가 표현의 대상이 되어 외부에 발신하는 기호로 작용하여 배후의 내용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그 배후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외부의 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5) 입체

입체란 벽체의 솔리드한 존재 또는 실체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기본 요소인 것이다. 입체에 대한 관심은 고전건축에로의 복귀라는 사조상의 변화와 물체 자체의 존재감이라는 조형 원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⁶⁾

(6) 분절

분절이라는 개념은 근대건축 특히, 기능주의 건축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 분절에는 서로 다른 기능에는 서로 다른 공간과 형태를 대응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공간은 각각 명료하게 구분되어 전체에로의 통합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7) 대립

면의 대립이란 본체를 에워싸는 면이 상이한 체계를 갖고 병치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면간의 대립을 표현하는 경우는 크게 동일면상에서 상하 또는 좌우의 면이 대립하는 경우, 전면과 측면 또는 전면과 배면처럼 이질적인 면이 대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⁷⁾

(8) 기억

프래트한 지붕보다는 삼각형의 지붕은 일종의 가옥형 모티브로서 우리의 집단적인 기억으로 남는다. 문화적으로 안정된 사회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불변적인 요소들인데, 건축물 개개의 특성은 이러한 불변적 요소들을 창조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달성된다.⁸⁾

(9) 운동

면의 운동은 곡선형태가 전체적인 액센트로서 작용하여 운동감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면의 운동이란 기하학적인 범주에 속하는 곡선과는 다른 자유로운 유기적인 곡선을 가르킨다.⁹⁾

(10) 혼성

혼성이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품종이 뒤섞인 잡종을 의미한다. 건축물에서 혼성적 징후의 의의는 그것이 사회의 다원화된 구조와 함께 작용적인 사회의 반영으로서의 건축과 미래에 도래할 본격적인 혼성적 경향으로서의 건축 예감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¹⁰⁾

3.2. 개구부

(1) 천공형

형태적 측면보다 법규 해결 위주로서 기능, 형태에 대한 최소의 비용을 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면과 개구부의 반복이며 이

들 상호간에는 우세성 보다는 상호 조화가 존재한다.

(2) 수직형

구조적 표현의 욕구에서 유래된 유형이며 구조가 지니는 간결성과 힘을 표현한다. 개구의 문제는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부대적인 것이 되고 개구의 정도는 내부기능의 요구에 임의로 대처하고 형태의 율동감과 시각의 연계성의 가치를 수행한다.¹¹⁾

(3) 수평형

수평적 요소와 바닥 등이 디자인 요소로 강조되어 나타나며 단조로움을 변화시켜 주기 위한 방법으로 부분적 곡면의 형성, 면의 절곡, 특히 유리면의 절곡등 디자인 요소로 사용된다.

(4) 격자형

의도적으로 구조격자를 사용하여 고정된 평면과 입면에 방향과 변화를 의도하고 강한 암시성을 내포한다. 추상적인 면과 선의 구성을 통하여 다양한 모습들이 기계미학의 언어로서 표현되어진다.

(5) 피막형

건물의 면과 개구부가 동일한 체계속에 자리잡아 전체가 하나의 면적인 특성을 지니면서 처리되는 입체 유형으로 개구부가 점차적으로 형태를 잃고 전면이 하나의 표면으로 처리된다.

(6) 혼합형

시각적 돌출법으로 개성이 강한 자각으로 주로 질서가 뚜렷하지 않고 대신 형태간의 우세와 각 요소들의 개별적인 배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지고 주변의 건물들과 함께 한 체계속에서 조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7) 폐쇄형

솔리드한 벽면이 주체로서 작용하고 면에 대한 인식은 폐쇄적이고 바탕으로 작용하며, 개구부는 그림으로 강조된다. 입체적 성격이 강하게 표현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기법이다.

3.3. 지붕부

소규모 건축물의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과 경사지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는 법규적 제한 조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경제적 여유심리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1) 평지붕

80년대 이전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유형으로 박스형태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옥상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 용이한 형태로 대부분의 건물에 적용되고 있다.

(2) 평지붕과 경사지붕을 혼합한 형태

옥상을 이용할 목적으로 일부는 경사지붕 형태를 취하고 나머지는 평지붕으로 하여 이용한다.

(3) 박공지붕

건물의 지붕형태를 강조하기위해 신고전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했

6)김광현, 전개서, p.110

7)김광현, 전개서, p.114

8)손세관, 벽면구성에 있어서 역사성의 표현, 플러스, 8802, p.158

9)장기성, 움직임 없는 움직임, 플러스, 8802, p.163

10)김문덕, 표면의 혼성적 징후로서의 예감, 플러스, 8802, p.167

11)정상용, 도심지 상가 가로변 상점 입면 구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 1985, p.26

던 원초적 형태인 삼각형을 이용한 유형이며 지붕 하부 공간에 다락층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간 이용을 최대화한다.

(4) 방형지붕

방형지붕 형태에 따른 천장을 설치하며 조형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난다.

(5) 궁형지붕

80년대 중반이후부터 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기술 및 경제적 여유로 인해 시도되고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를 강조한 유형이다.

3.4. 장식

J. Ruskin은 건축과 건물을 구별하는 방도를 장식의 유무로 판정하고 '건축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건물을 배열하고 장식하는 예술'이라 정의하였으며, 건물을 장식하는 목적이 건물의 외관이 인간에게 정신적인 건강한 힘, 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¹²⁾

(1) Canopy

캐노피를 이용하여 입구를 상징하며 형태의 한 요소를 어필한 예가 있고,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여 형태를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다

(2) 기벽(헛보)

여유심리가 형태화된 것이라 생각되며 소규모 건축물에 많이 나타나는 형태 요소이다. 가 입면의 사용으로 인한 장소성의 설정, 그리고 기능과 파사드와의 분리를 통한 허구성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가치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3) 발코니

소규모 상업 건축물의 형태요소로 기능적인 측면과 장식적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외부공간 활용이나 설비 공간으로 이용된다.

(4) 고전 모티브 사용

고전적 모티브를 사용하여 형태를 강조한 유형으로 전통한옥, Arch, 기둥, 삼각형 페디먼트 등을 형태요소로 사용된다.

(5) 철골 후레임 사용

기계적 미학, High-Tech적, 기술 지향적 표현 특성의 연출을 위하여 철골 후레임을 외벽 및 Canopy 등에 사용한다.

(6) 기타

소규모 건축물에서 사용된 장식 요소로서 앞에서 설명된 것 이외에 벽면을 그래픽으로 처리하거나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은유적 표현을 한 예도 있다.

3.5. 재료

현대에 들어서면서 재료가 건축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사용 방법 또한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의장적인 측면에서 마감재로 사용된 재료가 갖는 특성은 건축물의 표현양식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 적벽돌

친근감과 인락감을 주는 재료로서 주택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건축계에 대부분 사용되었으며 벽돌의 요철을 이용하여 벽면에 변화를 부여하는 수법이 사용된다.

(2) 타일

외장재로서의 내구성, 내약품성 등의 성능이 좋으며 의장상으로 보면 타일은 비교적 색채를 자유로이 낼 수 있고, 문양을 넣을 수 있고, 적절한 광택을 낼 수 있고, 변색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3) 알루미늄 복합 패널

반짝거리는 표면 처리로 활력감과 개성감을 표출하며 80년대 이후 고급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로 다양한 색상과 시공의 용이성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4) 석재

안락감과 친근감이 있는 재료로서 가공정도에 따라 다양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 내구성이 양호하고 중량감이 있어 고급 재료로 사용된다.

(5) 유리 및 유리블럭

활력감과 쾌적감을 주는 재료로 전면 커튼월을 사용하여 주변환경 뿐 아니라 인위적인 변화도 날카롭게 표현해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6) 노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인식 변화로 현대에 이르러 소박하고 순수하고 단순하며 우리에게 알맞은 재료로서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재료 미학적으로 형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재료에서 나오는 느낌이나 표현이 담백하고 순수하다.

(7) 외단열 공법

색상과 형태 구성이 자유로운 잇점이 있고 시공도 비교적 용이하다. 8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다. 거칠게 처리된 재질감, 약간의 흥미감을 유발한다.

(8) 기타

목재, 철판, 수성페인트, 본타일 스프레이, 베이스 패널 위 에폭시 페인트 등 다양한 수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3.6. 색채

하나의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표면의 색채는 그 건축물을 대표함은 물론 도시의 이미지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건물의 색채는 그 앞을 오가는 행인들에게 가로의 분위기를 판가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

(1) 백색

백색이 주는 인상은 깨끗하고 산뜻해 보이는 색채의 성격으로 인해 강한 쾌적감을 나타낸다. 그러나 쉽게 변색되고 더러워지기 쉬운 단점이 있으나 영구성을 띤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12)John Ruskin, 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 London, J.M. Dent and Sons, Ltd, 1969, p.7

<표 1> 소규모 미술관 사례 대상 외관

					
국제화랑	중로구 소격동	금산갤러리	중로구 소격동	아트선제센터	중로구 소격동
					
급호미술관	중로구 사간동	갤러리 현대	중로구 사간동	현대화랑	중로구 사간동
					
학고재화랑	중로구 관훈동	대림아트갤러리	중로구 관훈동	중로갤러리	중로구 관훈동
					
고도시	중로구 관훈동	해동화랑	중로구 관훈동	갤러리 시비나	중로구 관훈동
					
통인화랑	중로구 관훈동	선화랑	중로구 인사동	공갤러리	중로구 인사동
					
갤러리 퓨전	강남구 청담동	백여숙화랑	강남구 청담동	박영덕화랑	강남구 청담동
					
환기미술관	중로구 부암동	녹색갤러리	마포구 서교동	월전미술관	중로구 팔판동

(2) 회색

중성적이며 중화적인 느낌의 색채이며 시멘트라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물체 본연의 색채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무뚝뚝하고 침울한 느낌을 주며 갈색조를 띠는 경향이 있다.

(3) 갈색

갈색은 베이지색부터 다크는 암갈색, 벽돌색까지를 포함하며 주로 사용되는 색채는 황토색이다. 도시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흙에 대한 동경과 전통적으로 흙과 맺고 있는 친근감, 옛 건물의 흙벽돌에서 느끼는 벽에 대한 색채감동으로 많이 선택되어진다.

(4) 흑색

엄숙한 느낌과 침체감을 주는 반면에 개성감을 주는 색채로서 무한한 의미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색채이다. 유채색에 비해 건축물에 사용하기가 까다롭고 어렵지만 주위 환경에 따라 많은 의미의 변화성을 갖고 있다.

(5) 기타

앞에서 서술한 색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색채를 혼합하여 이용한 경우도 많이 있다.

레대상 미술관의 표면이 연직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곡면과 사면은 극히 일부분의 미술관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는 전시공간을 위한 기능적 영향이 외부에 표출된 것 이라 볼 수 있다.

<표 2> 벽면부 형태유형

표면유형	피막	격자	적층	자립	입체	분절	대립	기억	운동	혼성	합계
빈도수	14	0	1	2	2	7	0	2	1	4	33
%	43	0	3	6	6	21	0	6	3	12	100

<표 3> 모서리 처리 기법

모서리 처리	직각	곡면	예각	분절	부가	합계
유형	25	4	2	0	2	33
%	76	12	6	0	6	100

<표 4> 표면 유형

면	연직면	곡면	사면	합계
유형	27	2	4	33
%	82	6	12	100

(2) 개구부의 형태유형

출입구의 유형으로는 평 출입구와 후퇴 출입구가 같이 48%로 나타났다. 이는 법규상의 원인으로 대부분이 가로변의 건축선에서 돌출할 수 없기 때문에 평 출입구나 후퇴 출입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표 5> 출입구

유형	평 출입구	돌출 출입구	후퇴 출입구	합계
빈도수	16	1	16	33
%	48	4	48	100

창호부의 유형으로는 폐쇄형이 46%로 나타났고 그 나머지는 천공형과 수평형이 각각 15%, 12%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미술관이라는 독특한 기능으로 소규모 건물에서 벽면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표 6> 창호부

표면 유형	천공형	수직형	수평형	격자형	피막형	혼합형	폐쇄형	합계
빈도수	5	2	4	3	1	3	15	33
%	15	6	12	9	3	9	46	100

(3) 지붕부의 형태유형

지붕의 형태유형은 평지붕이 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경사지붕과의 혼합형이 12%의 비율로 나타났다. 평지붕 유형 중에서는 건물자체가 소규모로 인하여 공간내 부대시설이 부족해 옥상공간을 이용하는 미술관이 많이 눈에 띄었다.

<표 7> 지붕부의 형태 유형

유형	평지붕	평지붕+경사지붕	박공형	방형지붕	궁형지붕	만사드형	합계
빈도수	22	4	3	0	3	1	33
%	67	12	9	0	9	3	100

4. 사례 연구 및 분석

4.1. 사례 선정 및 방법

본 연구에서의 사례 대상은 소규모 미술관이 밀집해 있는 경북공주 주변 미술관거리, 그리고 인사동거리, 강남의 청담동 거리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미술관이 가로 경관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임대아 아닌 전용 미술관의 용도로 되어있는 미술관으로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소규모 미술관의 외관형태 중 형태적 특성이 뚜렷하고 작품성이 우수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33곳의 미술관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미술관의 면적이 2,000㎡내외가 되는 상업적 화랑을 포함한 소규모 미술관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미술관의 외관이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면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4.2. 사례 분석

(1) 벽면부의 형태유형

벽면부 형태유형으로는 피막이 50%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소규모 미술관이 주변건물에 비해 간결한 모습을 취하면서 독자성, 인지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분절, 혼성의 유형들이 각각 21%, 12%로 나타났다.

모서리 처리 기법으로는 직각처리가 7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미술관의 형태가 주로 박스형태임을 보여주며, 사면(12%)과 곡면(6%)도 벽면에 변화를 주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벽면부의 표면 유형의 분석 결과는 연직면이 82%로 대부분의 사

(4) 장식 유형

장식의 사용 측면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 미술관중 63%가 장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가벽이나 헛보 처리가 18%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여유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소규모 미술관이 자유로운 형태 구성을 할 수 있는 건축가의 영역임을 의미하기도 하다.

<표 8> 장식 유형 현황 분석

장식	CANOPY	가벽&헛보	발코니	고전모티프		
				삼각형	궁형	한식
빈도수	5	6	1	0	1	2
%	15	18	3	0	3	6
장식	철골 후레임	그래픽	기타	장식무	합계	
빈도수	1	1	4	12	33	
%	3	3	12	37	100	

(5) 재료 유형

재료 사용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재료의 발달로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사용된 재료를 살펴보면 석재가 34%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외단열 공법과 복합재료가 18%, 15%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미술관의 재료가 점점 고급화가 되는 경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재료 유형 현황 분석

종류	적벽돌	타일	법랑, 알미늄 복합판넬	석재	노출 콘크리트	외단열 공법	수성 페인트	철재	목재	복합재료	합계
빈도수	1	2	2	11	1	6	3	1	1	5	33
33%	3	6	6	34	3	18	9	3	3	15	100

(6) 색채 유형

색채 사용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소규모 미술관에 주로 사용된 색채는 백색이 34%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갈색이 31%, 회색이 21%로 대부분이 이계통의 색채를 사용하고 있었다. 주로 색채계획은 전시를 주기능으로 하는 미술관의 특성과 주위환경과 조화시킴으로서 연속성 있는 가로의 경관을 조성하고 통일성을 부여하여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살리도록 하였다.

<표 10> 색채 사용 현황 분석

색채별	백색	회색	갈색	흑색	혼합	합계
빈도수	11	7	10	2	3	33
%	34	21	30	6	9	100

5. 결론

본 연구는 소규모 미술관을 대상으로 하여 미술관의 외관 형태가 어떠한 구성기법에 의해 표현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외관의 구성요소와 다양성에 의한 유형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소규모 미술관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 외관 형태의 구성기법에 관

한 분석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소규모 미술관의 외관 형태 구성 요소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형태 표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벽면부의 형태유형으로는 피막, 분절, 혼성의 순으로 기법이 나타났는데, 이는 소규모 미술관의 개성이나 인지성을 고려하여 건축이 작품의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모서리 처리기법은 직각처리, 표면유형은 연직면이 가장 많이 표현되어 주로 소규모 미술관이 박스 형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개구부의 형태유형에서는 출입구의 유형은 평 출입구와 후퇴 출입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법규상의 원인이 큰 것으로 보이며, 창호부는 폐쇄형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여 소규모 미술관에서 벽면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셋째, 지붕부의 형태유형으로는 평지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건축물 자체의 소규모로 인해 부대시설의 부족으로 옥상공간을 이용하는 등 공간이용의 극대화를 이루는 미술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장식유형으로는 조사대상중 3분의 2정도가 장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주로 그 미술관의 기능에 맞는 형태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벽 처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출입구를 강조하거나 미술관이라는 문화적 여유심리가 작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다섯째, 재료사용 유형 특성은 석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본 조사대상의 미술관들이 전통적인 장소와 연관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가로 체계와 같은 이미지로 부여되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고급화되는 경향의 단일재의 사용도 많았지만 2-3가지의 재료를 대비시켜 사용하고 일부는 금속재 및 목재를 부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여섯째, 색채 유형으로는 재료 사용에서 석재나 외단열 공법이 많이 사용된 관계로 백색과 갈색, 그리고 회색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살리도록 하였다.

현대의 도시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유래를 지닌 도시는 새롭게 변화해 가는 가속도를 조절하고 융화하고자 갈등을 겪고 있으며 신도시들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며 오랫동안 존속될 수 있는 도시구도의 계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규모 미술관 건축물의 형태적 표현은 매우 다양한 형태 구성요소와 형태 유형에 의하여 다원화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성적인 형태 의사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소규모 미술관이 추상적인 상자형에서 점차로 상징성이 강한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는 과거의 무미건조한 형태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며 형태의 다양한 양상으로서의 발전은 건축의 조형적 차원에서 환영할만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도규환, 건축조형의장, 도서출판 서우, 1999
2. 장동찬, 건축법규해설, 기문당, 1998

3. John Ruskin, 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 London, J.M. Dent and Sons, Ltd, 1969
4. 김은철, 소규모 건축물의 외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홍익대, 1990
5. 남상은, 건축물 외관 형태구성에 있어서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 1988
6. 문준영, 소규모 상업 가로 건축물의 형태어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1987
7. 박상빈, 건축물 외관의 연속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1988
8. 박재평, 상업건축물 정면의 구성요소와 특징에 관한 연구, 홍익대, 1988
9. 이관희, 현대건축에 표현된 벽의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 1995
10. 이택열,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1997
11. 임채돈, 소규모 상업 건축물의 형태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1992
12. 장인철, 도시형 중,고층 사무소 건축물의 외부적 형태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1998
13. 장호식, 가로변 소규모 상업건축물의 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 1997
14. 정민우, 가로변 소규모 상업건축물의 외부형태요소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1993
15. 정성은, 소규모 미술관의 실내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1991
16. 김광현, 표면의 의식, 플러스, 8802
17. 김문덕, 소규모 건축물의 개성적 조형의사와 그 특성, 건축문화, 8802
18. 김병윤, 태어난 도시, 만들어 지는 도시, 플러스, 9411
19. 민경식, 오피스 빌딩의 표피-도시에서의 공간적 해석, 플러스, 9711
20. 박길룡, 시민의 문화환경과 미술관의 일상성, 건축세계, 9704
21. 방철린, 80년대의 한국현대건축, 건축문화, 9201
22. 손세관, 벽면구성에 있어서 역사성의 표현, 플러스, 8802
23. 임채진, 미술관 건축, 건축세계, 9704
24. 정동명, 중소규모 건축물외관구성의 다양성과 유형화된 형태요소에 관한 소고, 플러스, 9005
25. 탁영숙, 면의 의식 측면에서 본 두 건물, 플러스, 8802

<접수 : 1999. 11. 3>